

'光탈페 탐방 프로그램' 성공적 마무리

광주교육청, 美 보스턴·뉴욕서 진행 예술학교 탐방 글로벌 역량 키워 5·18운동·한국문화 알리는 공연도



광주교육청이 최근 미국 보스턴과 뉴욕에서 진행한 '光탈페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뉴욕 허드슨 강변에서 5·18민주화운동 세계화 플래시몹과 K-Pop 공연을 하고 있다. <광주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5일부터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보스턴과 뉴욕에서 진행한 '光탈페 탐방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의 하나로, 학생들의 글로벌 예술 역량을 키우고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버클리, 뉴욕대, 줄리아드, 하버드, MIT, 윌넛힐 등 유명 대학과 예술 고등학교를 탐방하고, Broadway Dance Center 및 Mark Morris 브루클린 등 전문 댄스 클래스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과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타임스퀘어, 워싱턴 스퀘어, 뉴욕한국문화원, 허드슨 강변 전광대 등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광주학생들의 공연은 뉴욕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현지 매체에 '광주서 온 차세대 문화예술 청소년 리더, 뉴욕 방문', '뉴욕, 보스턴서 문화예술 교

류' 등으로 보도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또 카네기홀, 링컨센터 등 백스테이지 투어, 우수 예술공연과 전시 관람, 한국어 예술 인재들과 멘토링(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 이해찬, 첼리스트 김기은, 보컬리스트 홍수희 등), 미국 탐방 등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탐방 프로그램을 계기로 해외대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다양한 사람과 대화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5·18 플래시몹을 통해 낯선 미국에서 광주 5·18을 알리는 의

미있는 경험을 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됐다" "광탈페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더 넓은 세계에서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 학생들이 세계민주시민 의식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많은 광주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중국 주요대학과 협력 네트워크 확장

흑룡강성·길림성·요녕성 등 방문 명문대학과 복수·공동학위제 추진



전남대학교가 중국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에 있는 명문대학들과 복수·공동학위제를 포함한 학술·문화교류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교류의 폭을 중국 전역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

25일 전남대에 따르면 최근 중국 동북 3성에 있는 주요 대학들을 방문해 새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학술 및 학생 교류 활성화, 우수 유학생 유치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특히, 중국 동북지역 최고 명문대학인 길림대학을 비롯해 동북사범대학, 길림외국어대학교는 학부 및 대학원의 복수·공동학위 개설, 단기 프로그램 확대 및 학술·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 중국 대학 랭킹 20위권으로 요녕성을 대표하는 동북대학교는 새로 업무협약을 맺고, 학술문화교류 확대, 중외합작 및 각 대학의 중점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한 복수학위제 추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자매결연대학인 하얼빈이공대학교는 현재 계획 중인 3개 전공, 120명 규모의 중외합작기구 신청과정에 파트너 대학으로서 상호협력하고, 우수 대학원생 유치 등 교환학생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쓰촨시 만결조양학교, 산둥성공업직업전문대학 등과도 단기 프로그램 개설 및 우수 유

학생 유치 협조방안을, 산둥성 청도녹색고등학교와는 '전남대 국제반' 개설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함께 검토하기도 했다.

동북 3성을 총괄하는 주선남대한국총영사관(영사 최희덕)도 전남대의 중국 대학들과의 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전남대는 지난 5월 북경이공대학(세계대학 300위권), 북경어언대학 등과 교류협력의 길을 텃으며, 지난해 9월에는 절강성 온주대에 '전남대 국제캠퍼스' 설립 및 의과학자 전공과정 개설 등 중국 유명 대학들과 교류의 폭을 넓혀 왔다.

국민선 전남대 글로벌대외협력처장은 "북경, 절강성에 이어 산둥성, 동북 3성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역의 명문대학들과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글로벌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대-中 남창공정대학 학생 교류 상호협력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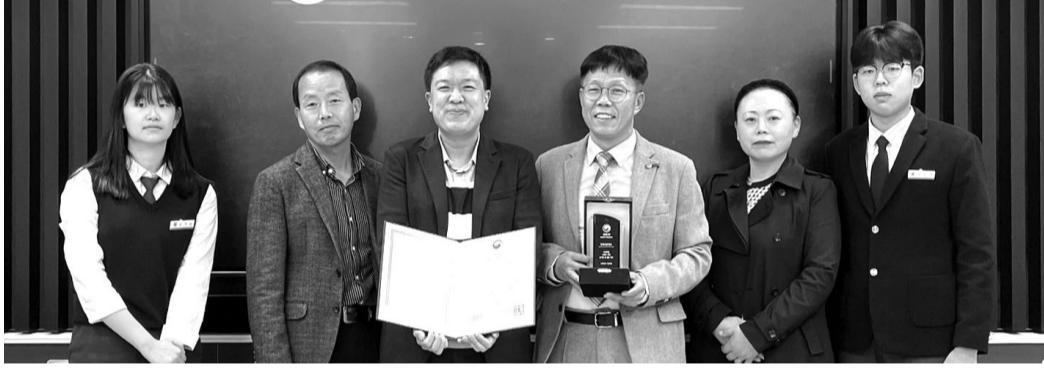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운데)는 최근 중국 강서성 남창공정대학 방문단(부총장 주민단 일행)과 학생 교류에 관한 상호협력 협의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장미영 광주대 부총장은 환영사에서 "남창공정대학과는 지난 2016년부터 전기공학학과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류 경험이 있다"면서 "학생 교류 등 다양한 협업을 통해 협력 범위를 넓히고, 양교의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창공정대학 주민단 부총장은 "이번 협서 체결을 바탕으로 양교 학생들에게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며 "교직원 간 연수, 전문가 초청 특강 등 다양한 학술교류를 통해 발전적인 교육 파트너십 형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학교는 이번 협의를 통해 교환학생 상호 파견, 교직원 교류 확대, 단기어학연수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영수 창평고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202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 선정을 기념하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창평고 제공>

창평고, 교육부 '202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선정

지역사회 농어촌 교육 모델 제시

담양 창평고등학교(교장 김영수·이하 창평고)가 교육부가 주최하는 '202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서 선정되는 등 농어촌 공교육의 모범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농어촌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우수 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개최됐다. 공모 결과 창평고는 최종 선정된 15개 학교(초 8개교, 중 5개교, 고 2개교)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창평고는 농촌 지역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대입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제공해 지난 2024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8명, 의학 계열 17명, 연·고대 22명 입학이라는 진학 성과를 기록

하는 등 명실상부한 지역 명문고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위한 비전 캠프를 비롯해 사제(師弟) 후견인제도, 동문 후원 진로진학멘토링(대학 탐방), 학교-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창평전통시장 환경 플로깅)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중학생 대상 수학 경시대회, 전통 한과 만들기 체험, 교복 물려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역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공동체 소속감을 강화하는 등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수 창평고 교장은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 학생이 다니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라며 "이번 선정으로 대학입시에서도 농어촌 교육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강대 군사학과, 육군3사관학교 12명 합격

학과 창설 이래 최다 합격자 배출 전공심화 개설 학사장교 진로 확대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군사학과가 학과 창설 이래 국가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육군 3사관학교 사관생도 최다 합격생을 배출했다. <사진>

특히 동강대 군사학과는 내년 졸업예정자인 2학년 전원이 국가직 공무원인 7급 육군 장교(9명)와 9급 RNTC 부사관(11명), 전투부사관(8명) 등으로 취업이 확정돼 직업 군인의 꿈을 이루게 됐다.

동강대 군사학과(학과장 조동권)는 올 5월부터 진행된 '2025년도 육군 3사관학교 사관생도 신입생 선발시험'에서 여성도 2명을 포함한 12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는 김상연·소현석·최아란·황선중·차승현·조현빈·황제용·주성민·김명금(여·이상 2년), 박동욱·송길현(여·이상 1년) 등 재학생 11명과 졸업생 고영민 등이다.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는 장교과정으로 국가직 공무원 7급에 해당된다.

조동권 학과장은 "동강대 군사학과는 이번 선발 시험에서 22년도 7명, 23년도 4명(여성도 1명), 24년도 9명(여성도 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25년도에는 최다 합격생을 배출했다"며 "특히 여성도의 경우 20대1의 경쟁률을 뚫고 2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강대 군사학과는 2025년학년도부터 3·4학년 학사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한다.

이에 따라 4년제 과정의 군사학과로 육해공군, 해병대 학사장교 진로가 가능해 재학생들의 취업 폭이 더욱 커졌다.

또 육군 부사관학군단(RNTC)인 제305학생군사교육단을 광역시권 전문대학 최초로 운영해 신입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부사관후보생과 육군3사관학교 동시에 선발하고 1학년 때 모든 국가직 공무원이 결정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